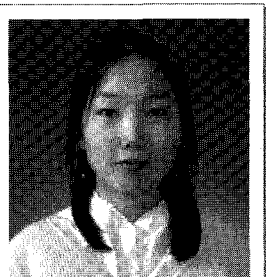


사서가 들려주는 해외 도서관 이야기

그들의 삶에 녹아있는 미국 도서관을 엿보다



강 봉 숙

대구 경운중학교 사서교사
fineday4you@lycos.co.kr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유공자 연수 관련 안내드립니다.”

기다려온 전화였지만 애써 태연한 척 전화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연수 장소를 듣고서 귀를 의심한 필자의 목소리는 어쩔 수 없이 높아진다.

“뉴욕?”

제이지(jay-z)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Empire State Of Mind)에서 노래한 그 뉴욕이다. 필자에게 있어 뉴욕은 그 노래처럼 활기차고 세련된 느낌으로 막연히 동경만 해온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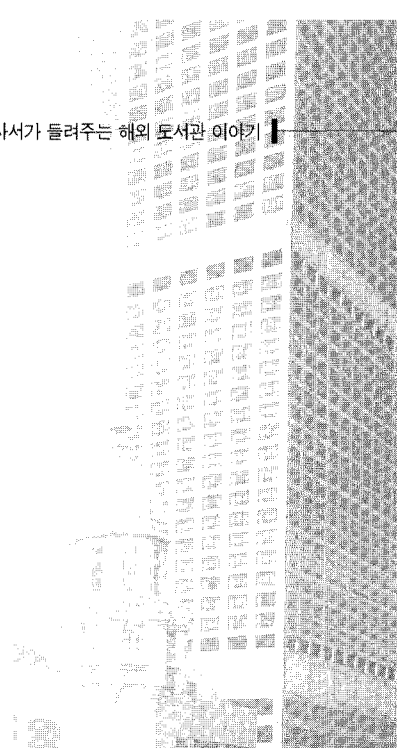
이용자 중심의 퀸즈공공도서관

연수단의 버스는 뉴욕시 퀸즈 자치구(Queens borough)의 한 마을인 플러싱(Flushing)에 쏘다. 퀸즈공공도서관을 견학하기 위해서이다. 뉴욕시의 다섯 자치구는 세 개의 공공도서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브루클린 자치구의 브루클린도서관 시스템, 맨하탄과 브롱스, 스테이튼 아일랜드를 아우르는 뉴

육공공도서관 시스템, 마지막으로 퀸즈 자치구를 관할하는 퀸즈공공도서관 시스템이 그것이다.

플러싱의 거리를 바라본다. 하지만 아무래도 필자가 상상해온 '차도남, 차도녀'¹⁾ 모습을 한 뉴요커(New-Yorker)는 찾기 힘들고 붉은 색 소지품을 유독 많이 지녀 한 눈에 봐도 중국인으로 보이는 이들의 모습이 가장 많이 눈에 띈다. 어쩌면 동양인이 아닌 사람을 찾는 것이 힘들 정도이다. 아니나 다를까 퀸즈 자치구는 전체 인구의 중 47%가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방문한 플러싱 지역에는 미국 동부 최대의 한인 타운이 자리하고 있어 그 주변을 중심으로 58,000명의 한국인이 퀸즈 자치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퀸즈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지역 특성에 따른 다문화 서비스인 '뉴 아메리칸즈 프로그램(New Americans Program)'이 활성화되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가 찾는 도서관으로 2009년에는 미국의 《라이브러리 저널(Library Journal)》이 '올해의 도서관'으로 선정한 곳이기도 하다. 엄밀히 말해 퀸즈공공도서관이라 함은 하나의 도서관이 아니라 하나의 중앙관과 60여개의 분관이 모인 도서관으로 350여명의 사서를 포함한 1,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퀸즈 자치구 전체의 거대한 도서관 시스템이다. 우리가 방문한 플러싱의 퀸즈공공도서관은 그 중 비교적 규모가 큰 분관에 해당한다.

퀸즈공공도서관의 다른 분관인 사우스 자메이카(South Jamaica)의 김연신 사서가 친절히 도서관 안내를 해주었다. 퀸즈 지역에 이민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민자의 미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그 지역의 학교와 직장 안내, 시민권 획득방법 상담 등 이민자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해당 국가언어로 제공하는 퀸즈공공도서관의 '뉴 아메리칸즈 프로그램'은 도서관을 슈퍼마켓이나 은행처럼 생활에 꼭 필요하고 자주 찾는 곳으로 인식하는 미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 성인교육센터를 두어 문맹자들을 위해 무료 영어학습 강좌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연수단은 지하에 위치한 성인교육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삼삼오오 짝을 이뤄 영어 공부 삼매정에 빠져 있는 다양한 이용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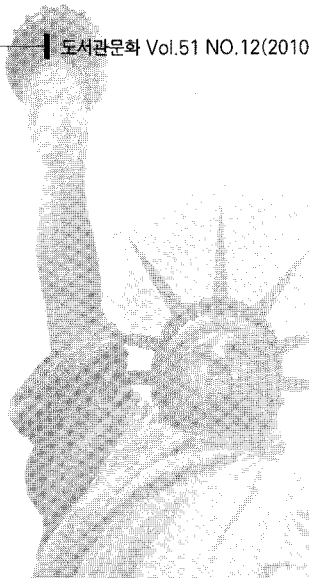


▲ 'Dynamic Window on Korea' 코너



▲아기자기한 도서관 소품

1) '차도남', '차도녀'는 '차가운 도시 남자', '차가운 도시 여자'의 줄임말로, 도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가진 남녀를 동경하는 의미로 쓰는 인터넷 신조어이다.



3층의 국제자료센터에는 언어별로 자료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정홍보처에서 2007년 기증한 5만 달러의 예산과 4,000여 종의 장서로 설치된 'Dynamic Window on Korea' 코너가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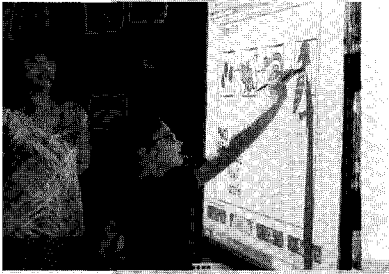
사서교사인 필자는 1층의 어린이실과 2층의 청소년 코너를 꼼꼼히 살폈다. 더구나 내가 근무하고 있는 경운중학교 도서관의 리모델링을 눈앞에 두고 있어 시설, 설비에 관심이 갔다.

데이비슨 애비뉴 초등학교의 도서관활용수업

뉴욕시를 벗어나 뉴욕주 롱아일랜드(Long Island)의 알록달록한 단풍과 낙엽으로 뒤덮인 한적한 마을 속 한 학교에 도착했다. 그곳은 전교생이 272명, 15학급에 지나지 않는 작은 학교, 맬번 학군²⁾의 데이비슨 애비뉴 초등학교(Davison Avenue Intermediate School)이다. 하지만 담임교사 외에 음악과 미술, 체육, 도서미디어, 수학, 읽기 전담 교사까지 모두 26명의 교사와 스피치전문가,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를 포함한 80명의 교직원 이 이곳에 재직하고 있다.

이 학교에는 송은경 도서미디어교사(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가 재직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학원에서 교육사회학을 공부하고, 다시 미국의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후 퀸즈공공도서관과 롱아일랜드 웰터락공공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했다고 한다. 이후 도서미디어교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학원의 학교도서관정보학 과정을 다시 이수하고 2003년부터는 도서미디어교사로 사명을 다하고 있었다. 맬번 학군에는 데이비슨 애비뉴 초등학교와 모리스 다우닝(Maurice W. Dawning) 초등학교, 두 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모리스 다우닝은 유치원생과 1, 2학년만이, 데이비슨은 3, 4학년만이 다니는 학교로 송은경 교사는 격일로 두 학교를 오가며 겸임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시간에는 3학년의 한 학급이 과학 교과의 생태계와 관련한 내용의 도서관활용수업을 하고 있었다. 20명의 학생들이 도서미디어교사의 지도에 따라 먹이사슬에 대한 기본 개념과 용어를 익힌 후, 한 명씩 앞에 나와 전자칠판으로 먹이사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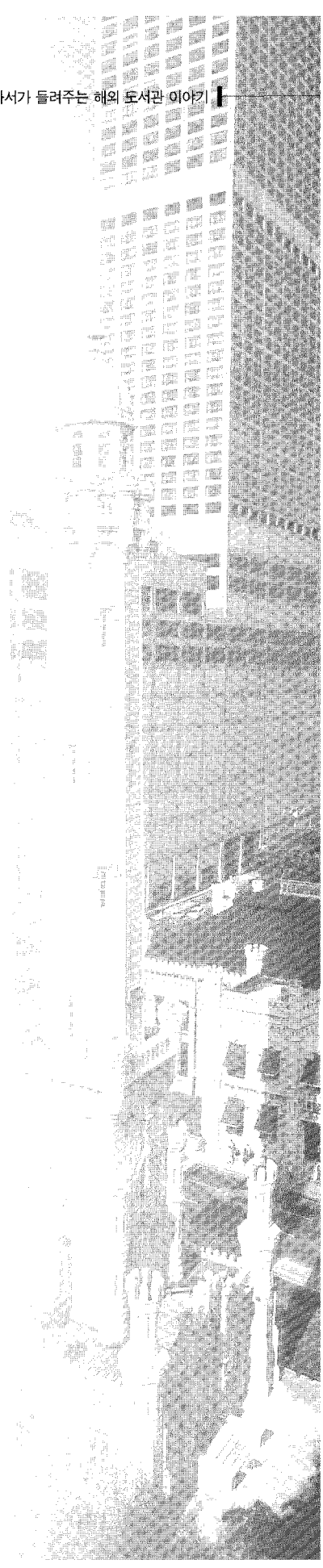
▲도서관활용수업

2) <http://www.malverne.k12.ny.us/malverne/site>

대한 게임을 해보는 수업으로 학급 전체가 수업에 집중해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과학 교과와 자칫 딱딱할 수도 있는 개념을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이해시키기 위해 도서미디어교사가 직접 준비한 지도안과 자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기자재 등을 활용하여 도서관활용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책과 노트만 가지고 하는 수동적 수업의 한계를 넘어서서 재미를 느끼고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 학습효과가 증대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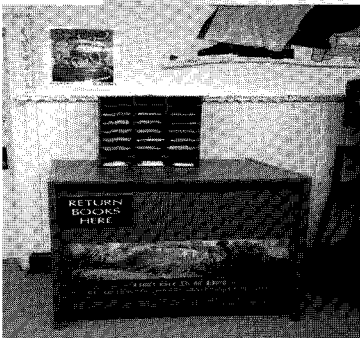
도서관활용수업은 각 학급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도서미디어교사가 다양하게 기획할 수 있는데, 도서관활용수업을 하기 전에 도서미디어교사는 담임교사와 직접 만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중 도서미디어교사가 협업해서 가르칠 내용과 교실과 도서관에서 각각 어느 영역까지 가르칠지 등을 논의하고 수업에 임한다. 이러한 체계는 한국의 도서관활용수업 준비 과정과 비슷하지만, 미국에서는 도서미디어교사가 독자적으로 도서관활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댈변 학군의 초등학교는 각 학급별로 일주일에 한 시간 씩 도서미디어교사가 담당하는 도서관활용수업이 교육 과정에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 또 미국 초등학교의 경우 우리의 수업과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미디어활용능력(Media literacy)에 보다 치중한 도서관활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도서미디어교사(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라 불리는 미국 내 사서교사의 명칭과도 관련되어 있을 듯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문제 풀이식의 교육이 빠르며, 아이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도서관활용수업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실시할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사실 미국의 초·중학교도 매년 국어(ELA : English Language Arts)와 수학에 대한 표준학력 평가를 실시하는데 우리처럼 개인별·학교별 성적이 서열화 되기에 학교에서 매우 중시한다고 한다. 또한 2002년 발표된 부시 정부의 낙오학생방지(No Child Left Behind : NCLB) 정책 역시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학을 최우선으로 강조함에 따라 국어와 수학에 대한 평가에 학교의 자존심을 걸고 있다. 따라서 우리처럼 미국의 교사들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문해력을 길러주기 위해 씨름을 하다 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도서미디어교사 역시 도서관활용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내용을 강화해주는 심화학습을 담당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서관활용수업의 학습효과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신뢰도와 의존도 역시 매우 높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도서관활용수업을 위한 전반적 여건 자체가 미국처럼 마련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의 학교는 교과교사 한 두 명이 의지를 보이면서 도서관에 수업이 없는 시간이 없을 만큼 도서관활용수업이 활성화되었는데 정작 그렇게도 꿈꾸던 상황이 되자 학교도서관 자체의 여건이, '필자의 자질이 부족구나' 하고 혼자서 많이도 부끄러워했다. 도서관활용수업에서 교수자로서의 사서교사는 정보탐색 교육은 물론이고 정보를 분석, 종합, 정리, 평가하는 정보활용의 모든 단계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고백하건대 필자는 이러한 수업을 준비하는 일이 몹시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도서관을 활용해 교과 공부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아이들에게서 자료 찾는 데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정작 내용을 분석하고 종합해 과제를 완성할 시간이 부족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많은 준비를 한다. 수업 내용과 관련된 자료의 목록을 미리 나뉘주기도 하고 북트럭이나 책상 위에 해당되는 자료를 찾아 올려 놓기도 해 본다. 또 한 학년에 400명씩 되는 아이들이 한 주제의 자료를 동시에 활용해 교과 수행과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활용하게 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해당되는 페이지를 복사해 두는 수고마저 마다하지 않지만 때로는 자료를 대출해 가서 더 읽고 싶다는 아이를 말리기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시중에 교과 내용에 밀접한 전자책, 전자저널이 학교급별, 교과별 특성에 맞게 구성되어 있지도 않을 것 같고 일 이천만원 내외의 학교도서관 전체 예산으로 이러한 자료를 구독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썸 되면 필자의 수준 자체를 닷해보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업무량이 너무나 많아져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데 한계점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문헌정보학에는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싶고 사서교사는 학교에서도 이방인, 도서관계서도 이방인인 것인가 하는 별별 망상을 하기도 한다.

그런 번뇌 속에 운 좋게도 뉴욕이라는 곳에 연수를 왔다. '운 좋게도 뉴욕'이라는 말은 정보활용교육과 관련해 가장 유명한 이론인 'Big 6' 를 개발한 아이젠버그(Eisenberg) 박사가 근무했던 시라큐스(Syracuse) 대학이 위치한 뉴욕 주라는 뜻도 포함한다. 그래서일까 이론적으로 완벽한 도서관활용수업을 기대하며 데이비슨 예비뉴 초등학교 도서관 문을 열었다. 내가 참관한 초등학교 3학년의 먹이사슬 관련 도서관활용수업이 정보활용교육의 단계 중 어느 단계를 응용한 것인지 찾을 수 없어 '무식하다' 며 스스로에게 한탄도 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관련된 책을 스스로 찾아 한 줄로 줄을 서 보조직원을 통해 대출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 학생들이 직접 만든 도서대출카드의 함이 놓여진 도서반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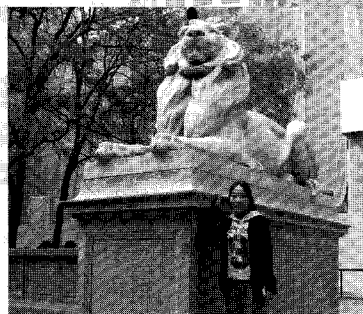
도서미디어교사가 이론적인 정보활용교육의 틀에만 얽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 내용 영역까지 넘나들며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대상과 상황에 맞게 실시해 내는 역량, 보조직원을 통한 도서관의 일상적 업무 부담 경감, 부모와 함께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해 온 학생들의 경험, 교육공동체가 사서교사와 도서관의 교육적 역량에 대해 갖는 절대적인 신뢰를 엿보았다. 우리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학생들이 학부모가 될 즈음에는 우리의 도서관 문화도 분명히 바뀌어 있을 것이라 이야기를 나누며 송은경 사서교사와 에드워드 텔런(Edward Tallon) 교장과도 작별인사를 했다.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뉴욕공공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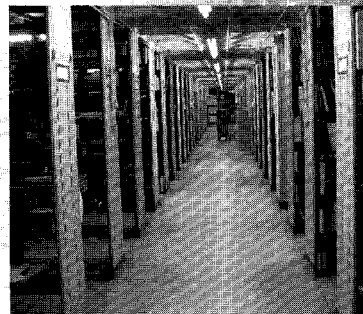
안면이 많은 사자 두 마리가 지키는 품격 있는 대리석 건물 앞에 도착했다. 도서관이 용교육을 할 때 자주 읽어주는 동화 『도서관에 간 사자』에 삽화로 등장하는 사자가 확실하다. 작가인 미셸 누드슨(Michelle Knudsen)이 뉴욕시와 뉴욕주 여러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까지 보태보면 이 녀석들은 그 사자들이 틀림없다. 미국 아이오와(IOWA) 주 스펜서도서관(Spencer public library)의 마스코트로 듀이(Dewey)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가 있다면 뉴욕공공도서관에는 '인내(Patience)'와 '용기(Fortitude)'로 불리는 사자 두 마리가 있다. 뉴욕 시민들이 사자와 뉴욕공공도서관에 대해 보내는 애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뉴욕공공도서관은 많은 소설,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고 특히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Sex and the City)의 주인공 캐리가 택한 결혼식 장소로 유명하다. 실제로 뉴욕공공도서관은 꿈의 결혼식 장소로 꼽히는데 외적인 모습이 멋있기도 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공장소라는 상징성 때문이라고 한다.

퀸즈공공도서관 시스템처럼 뉴욕공공도서관이라 함은 하나의 도서관이 아니라 세 개 자치구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4개의 연구도서관과 80여개의 지역분관을 가리키는 복합관을 가리킨다. 그 중 두 마리의 사자로 상징되며 관광객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이 바로 맨하탄의 42가와 5번가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인문사회과학도서관으로 내년 개관 100주년을 맞이한다.

1895년에서 1911년에 걸쳐 저수지를 매우는 대공사를 통해 지금의 5번가 뉴욕공공도서관이 완성되었으며, 1911년 5월 23일 개관식을 하고 황금열쇠로 열어 도서관 문을 열었으며, 대중에게는 그 다음날인 5월 24일부터 공개되었고, 아침 9시 14분에 첫 대출



▲뉴욕공공도서관 사자 '인내'와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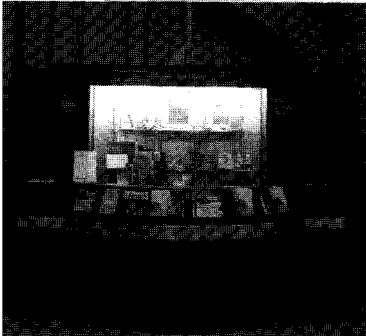


▲폐가식 서고





▲도서관 1층에 마련된 기부함



▲자원봉사자의 모습

이 이루어졌는데 그 책은 러시아어 책으로, N. I. Grot의 'Nравstvennye idealy nashogo vremeni(Ethical Ideas of Our Time)' 라고 뉴욕공공도서관의 유희권 사서가 설명해 주셨다.

뉴욕공공도서관의 특징을 꼽자면 운영이나 규모면에서 세계 제일이면서도 공립이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라는 점이다. 뉴욕공공도서관의 역사는 곧 기부의 역사라고 한다. 틸덴(Tilden), 아스터(Aster), 레녹스(Lenox), 카네기(Carnegie) 등의 도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지금도 기부를 통해 조성된 기금에 의해 도서관 운영비의 30%이상을 충당하고 있었다. 카네기나 빌게이츠 같이 도서관에 많은 기부를 한 이들은 나눔을 실천하는 데 주저함이 없기도 하지만 도서관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고 언변도 뛰어나 도서관과 관련해 남긴 그들의 어록은 우리 도서관 한 편에 크게 써 붙여 놓고 싶은 말들로 가득한데, 도서관에서 많은 것을 얻었으니 많은 것을 내놓아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뉴욕공공도서관 운영에 부자들만이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안내 데스크 곳곳에는 백발의 자원봉사자가 도서관 운영을 돕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들도 카네기나 빌게이츠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약한다

미국의 여러 도서관을 보며 느낀 것은 노인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백발의 노인은 자원봉사자로, 또 도서관 이용자로 도서관 곳곳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의 도서관 이용자는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높은 것 같은데 이곳은 그야말로 각양각색, 남녀노소가 될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를 하면 먼저 도서관에 가서 이용자 등록을 하는 미국인에게서는 도서관이 이미 삶의 일부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서관 운영 수준이 미국의 도서관보다 뒤쳐져 있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다. 오히려 하나하나의 도서관이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미국의 도서관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 멋진 시설을 가진 도서관도 많고 창의적인 도서관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은 우선 도서관의 수라고 생각한다. 더 많아져야 한다. 그래서 이용자가 도서관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해야 한다. 도서관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우리 사서들 역시 지금껏 열심히 운영해 온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오래 지속해야 하겠다. 도서관에서 많은

것을 얻었으니 나도 무언가를 베풀어야 한다는 이들이 속속 나올 때까지 우리는 아직 더 많이, 꾸준히 애를 써야 할 것이다.

사진을 보고 있노라니 “이토록 해맑은 우리 도서관인들은 아직도 한참 더 애쓸 일이 남았는데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는 대책 없는 긍정적 웃음이 얼굴에 피식하고 솟아오르며 다음과 같은 사진 제목이 떠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약한다!’ 📖

